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

히브리서 11:5

성경에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담의 7대손 에녹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스라엘 분열기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에녹과 엘리야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한가지는 그들이 살았던 동시대 사람들이 극도로 비신앙적이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가지는 에녹과 엘리야가 죄를 멀리하며 악한 것들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이 살던 당시는 극심하게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에 반해 에녹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에는 그를 가리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즉, 에녹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분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마치 커튼으로 가려진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재와 죽음 이후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커튼의 이름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통과하면 우리는 그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 죽음의 단계를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간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에녹을 가리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에녹의 삶을 살펴보면,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른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특별한 업적을 남긴 적이 없었습니다.

“에녹은 육십오 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창 5:22)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창 5:21-22)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 5:24)

성경은 에녹이 므두셀라를 낳은 이후 3 백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므두셀

라를 낳은 이후에 어떤 특별한 결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의 특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모압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지금까지의 삶의 터전이었던 고향과 친척을 포기하고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향해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따르게 됩니다.

믿음은 이렇게 결단하고 그 방향을 향해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했던 가치관이나 생활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지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처음 수영을 배우는 사람은 물이 우리의 몸을 떠운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팔과 다리를 휘저으며 몸을 띄워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힘을 빼고 나면 그때서야 우리의 몸이 뜨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보지도, 듣지도, 만나지도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을 빼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서서히 내려 놓게 되면, 조금씩 우리안에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두가지 갈등을 발견합니다.

첫번째 갈등은, 이 세상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 영망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경

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이 세상에서 본받을 것도 보이고 꽤 괜찮아 보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신앙 두가지 모두를 선택하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그 중 한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니 그것이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이 선택에서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려 할 때, 그에 따르는 희생이 너무 커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택 앞에서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갈등은, 위의 선택에서 신앙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한다고 해서 과연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갈등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솔함' 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100%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런 갈등들을 뛰어 넘을 수 있는 방법은,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하고, 진정으로 귀한 가치가 도대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고,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으며 최고학부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그가 유대교를 한 순간에 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가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가 아닌, 예수 안에 진정한 가치가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낯설고 위험한 오지로 날아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 일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자신의 모든 삶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포기를 통해 복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 12:1-3)

자신에게 가치있다 여겼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을 향해 믿음으로 떠나게 됩니다. 포기하고 나니까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100 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포기하고 나니까 오히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후손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 22:16-18)

우리가 왜 포기를 못할까요?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예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 과감히 자신의 목표, 의지, 생활 방식, 가치관을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함으로 인해 그 분과 언제나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 발생하는 두 가지 갈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두가지 갈등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고, 그 갈등을 뛰어 넘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2.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내가 포기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내 삶을 돌아보며 진솔하게 나누어 봅시다.
3. 오늘 말씀에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결단하거나 다짐한 부분이 있다면 그 마음도 함께 나누어 봅시다.